

“광주·전남 통합 시 인구 320만·GRDP 150조 슈퍼 지자체”

〈지역내총생산〉

강기정 시장, 광주경총 금요조찬 포럼서 통합 필요성 강조
수도권 일극 대응할 비수도권 최대 광역경제권 구상 제시
산업·재정·인프라 통합으로 지역·기업 경쟁력 극대화 기대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의 ‘슈퍼 광역경제권’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으로, 산업·재정·인구 등 구조 전반에서 체질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는 분석이다. 11일 광주경총(광주경총)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시 서구 힐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초청해 금요조찬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 기업인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강 시장은 올해 광주시 시정 계획과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대통합 부강한 광주의 확장”

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 성과를 공유하고 행정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효과는 광역 경쟁력 강화와 재정·행정 효율성, 인구 감소·수도권 집중 대응 역량 확대”라며 “광주·전남 통합 시 인구 320만명, GRDP 150조원 수준의 ‘슈퍼 지자체’가 형성돼 부강한 특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는 자동차·인공지능(AI)·미래차·에너지 신산업을, 전남은 이차전지·해상풍력·수소·항만 물류 등을 각각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 경계로 인한 정책 분절과 중복 투자, 광역 인프라 연계 한계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정 통합이 이뤄질 경우 산업 정책 역시 공간적으로 확장되며 지역

별 분야까지 가능해지면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재정 사업과 대형 국책 프로젝트 유치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항만·공항·에너지 인프라 연계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 광주·전남 통합이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지역 내 소비 위축이 커지면서 현행 행정 체계로는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

는 것이 지역 경제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지역 경제계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기업 활동의 무대를 넓히는 ‘구조적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통합 광역 지자체가 출범할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세계적 기업 유치, 광역 교통망 구축 등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초광역 경쟁력 확보와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시점”이라며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경제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광주시 서구 힐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총(광주경총) 금요조찬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광주경총 제공〉

한전, 美 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컨설팅 계약

3년간 텍사스 등 송전망 사업 수행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9일 미국 전력분야 1위 엔지니어링 기업인 ‘번스앤맥도널(Burns & McDonnell)’ 본사에서 번스앤맥도널과 765kV(킬로볼트) 송전망 기술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양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해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번 계약은 한전의 미국 송전망 시장 진출의 계기이자 지난 2024년 양사 간 체결된 협력협약서를 기반으로 추진된 기술협력의 구체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전은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쌓은 765kV 송전망 설계·건설·운영 전 주기 기술 역량을 활용해 번스앤맥도널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765kV 송전망 사업에 대한 설계 기술검토, 기자재 성능시험 등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전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765kV 송전망 확충 계획에 번스앤맥도널의 현지 사업 경험과 한전의 초고압 송전 기술이 결합해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계약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미국 중부, 중서부, 텍사스 등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며 “이번 계약이 미국 전력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하고, 향후 송전망 투자사업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미국 내 초고압 송전망 분야 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 사업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한전의 전력망 핵심 기술 퍼기지인 K-스마트그리드 플랫폼을 활용해 에너지 신기술 수출 등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GGM, 캐스퍼 인기에 생산시설 확충·50여명 추가 채용

올해 6만 1200대 최대 생산 계획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캐스퍼의 국내외 인기에 힘입어 생산 시설을 늘리고 50여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학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GGM이 지역 일자리의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11일 GGM에 따르면 지난해 캐스퍼 판매 호조에 역대 최대인 5만 8400대를 생산하며 누적 생산 20만대를 돌파했다. 올해는 전기차와 수출 생산량을 늘려 지난해보다 4.8%(2800대) 증가한 6만 120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GGM은 출범 이후 올해 처음 생산 목표가 6만 대를 넘어서면서 따라 시간당 생산량(UPH)을

26.7대에서 29.5대로 증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2억여원을 투입해 설비 증설 공사와 50여명 추가 인원 채용에 나선다.

원서 접수는 오는 19일까지이며 GGM 채용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원서 접수 후 인공지능(AI) 역량 검사와 서류·면접·건강 검진 등을 거쳐 선정된 합격자들은 3월 9일 입사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하반기 공채에는 27명 모집에 992명이 지원하며 평균 3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021년 9월부터 캐스퍼를 본격 생산한 GGM은 해마다 생산량이 늘어나며 채용 인원도 늘려왔다. 2021년 555명에서 지난해 706명, 이번에 50여명을 뽑을 경우 5년 새에 200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 중 20~30대 청년층이 85%에 달해 지역 경제

와 일자리를 지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GGM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일하는 시간도 늘어나 기술적 평균 연봉은 2021년 3100만원에서 지난해 4900만원(광주시 주거 지원비 360만원 포함)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는 임금 항목에 직무급이 신설돼 직무 난이도와 업무 성과에 따라 개인별 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

GGM 관계자는 “GGM은 광주·전남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사회공헌 성격의 회사”라면서 “올해 2교대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2교대를 추진해 400여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고급리 논란 쿠팡파이낸셜 대출

출시 반 년만에 182억원 판매

쿠팡 플랫폼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쿠팡파이낸셜의 대출상품이 출시 약 반년 만에 누적 182억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기간에 대출 규모가 2000건 가까이 급증하면서 플랫폼 기반 금융의 영향력과 함께 금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카질 전망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지난해 7월 말 출시 이후 12월까지 총 1958건이 판매돼 누적 대출금액만 181억 7400만원에 달한다.

작년 말 기준 대출 잔액은 134억 1400만원이며 같은 달 29일부터 신규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

이 상품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최대 18.9%의 금리를 적용하는 구조다. 연체가 발생하면 판매자의 쿠팡 정산금을 담보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마트 새해맞이 육류 상품 할인 행사

이마트 축산코너 한우 매대에서 고객들이 소고기 할인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14일까지 ‘새해 맞이 육류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호주산 유기농 소고기와 한우 일부 품목은 20%, 국내산 돼지고기는 전 부위를 20%, 토종닭 전품목도 30% 각각 할인 판매한다.

〈이마트 제공〉

지난해 1인당 GDP 3만6000달러 턱걸이

고환율·저성장에 3년 만에 감소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하며 3만6000달러대를 간신히 유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저성장 국면 속에서 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달러 기준 GDP가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재정경제부·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6107달러로 전년보다 0.3%(116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GDP가 줄어든 것은 3년 만이다.

달러 기준 경상 GDP 역시 전년 대비 0.5% 감소한 1조 8662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조 7987억달러)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

략’에서 지난해 경상성장률을 3.8%로 제시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 839달러로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선 뒤 2018년 3만 5359달러까지 증가했다. 이후 팬데믹 등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해 2020년에는 3만 3652달러로 떨어졌다.

2021년에는 경기 부양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수출 호조에 힘입어 3만 7503달러로 반등했지만 2022년 불가 상승과 금리 인상 여파로 다시 3만 4810달러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한국 실질 GDP 성장을 예상치는 1.0%로,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전년 평균보다 58.18원(4.3%) 오른 1422.16원을 기록하며 달러 기준 GDP 감소 폭을 키웠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고용노동청, 생활폐기물 사업장 합동점검

한파 안전 5대 수칙 안내

또 한파로부터 환경미화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핫팩·네워머로 구성된 ‘웜 키트’를 나눴다.

점검 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빈번히 사고가 발생하는 지개자 후미등 불량과 노동자 통행로 미obl보 등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지도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불시 점검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중기, 구인난에 외국인 고용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

국내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국내 중소기업 5곳 중 4곳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223곳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중 82.6%는 내국인 구인난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고, 13.4%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들었다.

응답자의 92.9%는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취업 기피 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응답 업체의 66.6%는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답했고 97.8%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한도에 미달해 고용한다고 했다. 그 원인은 신청 수수료, 숙식비 제공 등 ‘고용 비용

부담’(44.2% 중복 응답),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36.6%), ‘경기 침체로 일감 감소’(34.9%) 등의 순이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로또복권

(제 1206회)

당첨 번호					2등 보너스수자
1	3	17	26	27	42

<tbl_r cells="2" ix="1" maxcspan="5" maxrspan="